

이상원 | 외환분석부장 (제 7225)

- 주요 뉴스: 미국 경제, 실물·심리 지표 혼조 및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
 - 미국 트럼프 대통령, 2주 내 반도체 관세 발표 예고, 마-러 정상회담 개시
 -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연준 9월 금리인하(-25bp) 전망 우세(6:4)
 - 중국 실물경제 지표, 수요(소매판매)·생산(산업생산) 부문 동반 부진
- 국제금융시장: 미국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및 경제활동 둔화 우려 반영

미국 주가 하락[-0.3%], 달러화 약세[-0.4%], 미국 금리 상승[+4bp]

 - 주가: 미국 S&P500은 경제지표 혼조 등으로 하락. 다우는 소폭 상승(+0.1%)
유로 Stoxx600은 마-러 정상회담을 주시하는 가운데 약보합(-0.1%)
 - 환율: 달러화지수, 미국-유럽(독일·프랑스 등) 장기금리차 축소 등으로 하락
유로화 가치는 0.5% 상승, 엔화 가치는 0.4% 상승
 - 금리: 미국(10년물)은 9월 연준 금리인하 기대가 추가 감소하면서 상승
독일은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소화하면서 큰 폭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376.75원(전일 NDF 증가 대비 0.003% 하락). 한국 CDS 보합

		8/15일	8/14일	전일대비			8/15일	8/14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449.8	6,468.5	-0.29%	국제 금리 10y	미국	4.32%	4.28%	+4bp
	유럽	553.56	553.87	-0.06%		독일	2.79%	2.71%	+8bp
	중국	3,696.8	3,666.4	+0.83%		영국	4.70%	4.64%	+6bp
	일본	43,378	42,649	+1.71%	CDS 5y	한국	21bp	21bp	0bp
	한국	휴장	3,225.7	-		중국	43bp	43bp	-0bp
환율	달러지수	97.85	98.25	-0.41%	위험 지표	EMBI+	334	337	-3bp
	유로화	1.1703	1.1648	+0.47%		VIX	15.09	14.83	+1.75%
	엔화	147.19	147.76	+0.39%		WTI유	62.8	63.96	-1.81%
	위안화	7.1845	7.1815	-0.04%	원자재	구리	449.3	448.0	+0.29%
	원화	휴장	1,382.0	-		금	3,336.2	3,335.4	+0.0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경제, 실물·심리 지표 혼조 및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

- 상무부 인구조사국(Census)은 7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고 발표(6월은 +0.6% → +0.9%로 상향). JPM은 세액공제 종료(9.30일)를 앞둔 전기자동차 구매 급증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 온라인 소매업체들의 대규모 판촉 등도 영향
- 미시건대는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 61.7에서 8월 58.6로 하락했다고 발표(예상 62.0)하면서, 관세발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악화 우려에 기인한다고 설명. 1년 후 인플레이션 기대는 4.5%에서 4.9%로 상승했으며, 1년 후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의 비율은 약 60%로 대공황 당시 수준과 유사
- 한편, 뉴욕 연은의 3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Nowcast)는 8.8일 +2.02%에서 8.15일 +2.06%로 상승. 지표별 영향은 7월 소매판매 +0.06%p,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11.9) +0.11%p, 산업생산(-0.1%) -0.10%p 등으로 제시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트럼프 대통령, 약 2주 내 반도체 관세 발표 예고

- 특정 세율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초기에는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제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추후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 한편,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돌입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등을 논의

■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연준 9월 금리인하(-25bp) 전망 우세

- Reuters가 실시한 서베이 결과, 110명의 응답자 중 67명(61%)은 연준이 9월 FOMC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 이는 7월(53%)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며, 42명은 금리 동결을, 1명은 50bp 인하를 예상
- 다만, Barclays는 시장 참가자들이 연준의 노동 상황에 대한 평가와 책무를 잘못 해석하고 있으며 9월 금리인하에 과도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지적. Morgan Stanley는 8월 고용 호조 및 CPI 상승률 추가 상승 시 금리 동결을 예상

■ 중국 실물경제 지표, 수요·생산 부문 동반 부진

- 국가통계국(NBS) 발표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5.7%_{yoy}(24.11월 이후 최저), 소매판매는 +3.7%(24.12월 이후 최저) 등으로 둔화. EIU는 '25년 초반에 선제적으로 시행되었던 중국 정부 지원의 영향력이 다소 약해졌다고 평가
- 중국인민은행, 2분기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적절하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세밀히 추진해 과학기술 혁신 지원, 소비 진작, 대외무역 안정을 강화할 것임을 예고. 환율의 경우 합리적 균형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

■ 일본 2분기 경제, 수출 주도의 성장 호조. 하반기는 부진 가능성

- 내각부, 2분기 GDP 성장률이 +1.0%_{전기비연율} 성장했다고 발표(1분기는 +0.6%). 개인소비 성장이 둔화(+0.9% → +0.6%)되었으나 수출(+8.4%)이 급증한 데 기인. 단,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관세로 인한 GDP 0.3~0.4% 감소 가능성을 언급
- Mitsubishi UFJ, 3분기에는 수출 감소 등으로 성장이 부진할 수 있으며, 연말 경 인플레이션 둔화 및 소비 심리 회복 등에 의한 경기 회복을 예상

■ 대만 2분기 경제 큰 폭 성장. 정부는 '25년 성장률 전망치 상향

- 행정원 주계총서(DGBAS)가 발표한 2분기 GDP 성장률은 +8.01%_{yoy}로 1분기 (+5.45%) 대비 개선. 수요 측면에서는 견조한 AI 수요 등에 기반한 상품·서비스 수출(+35.0%)이, 생산 측면에서는 제조업 부문(+17.24%)이 성장을 주도
- 아울러, '25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4.45%로 상향 조정(5월 전망치는 3.10%). 수출(11.44% → 23.74%)과 고정자본 투자(5.60% → 9.19%) 전망치가 큰 폭 상향 조정된 데 기인. '26년 GDP 성장률 전망치는 +2.81%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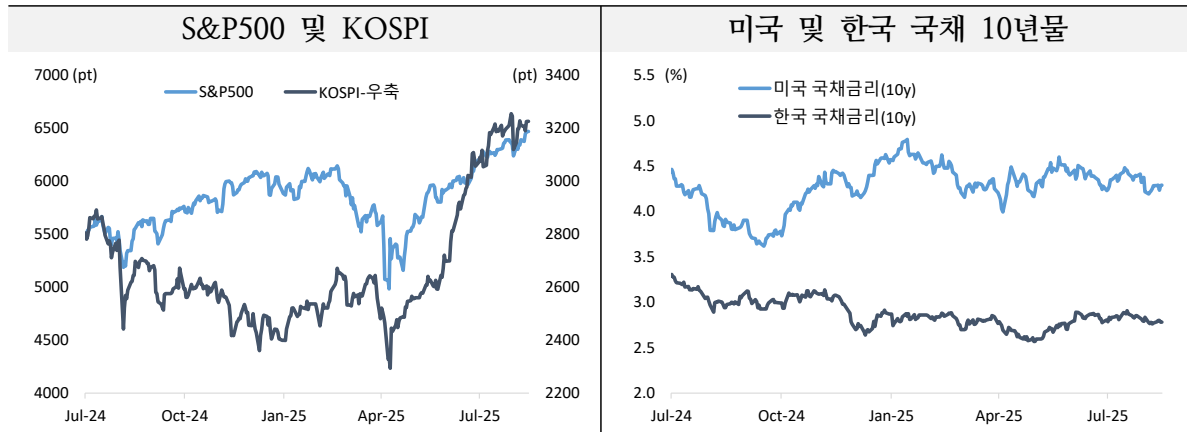
■ 인도 정부, 미국발 관세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 예고

- 모디 총리, 10월부터 GST_{상품 및 서비스 세금}를 인하하겠다고 발표. 해당 조치는 기존 부터 추진해오던 세율 구간 단순화와 함께 발표될 예정. 미국 관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비료부터 제트 엔진, 전기차 배터리에 이르는 모든 것에 대한 자체 생산 강화 등을 촉구했으며 농민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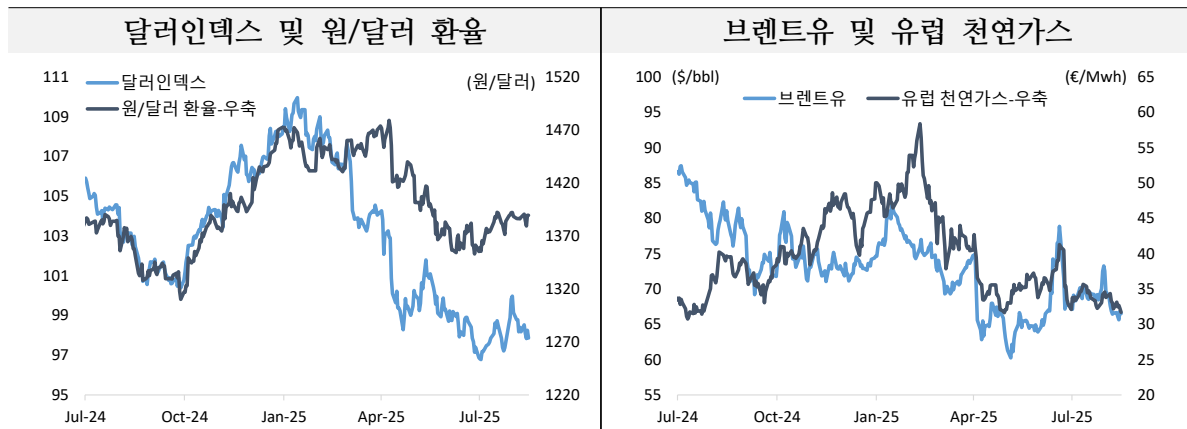
주요 경제·금융 이벤트

- 일본 6월 3차산업 활동지수(Bloomberg +0.2%), 캐나다 7월 주택착공(26.5만건), 싱가포르 7월 수출, 스페인 6월 무역수지 등 경제지표 발표 예정(8.18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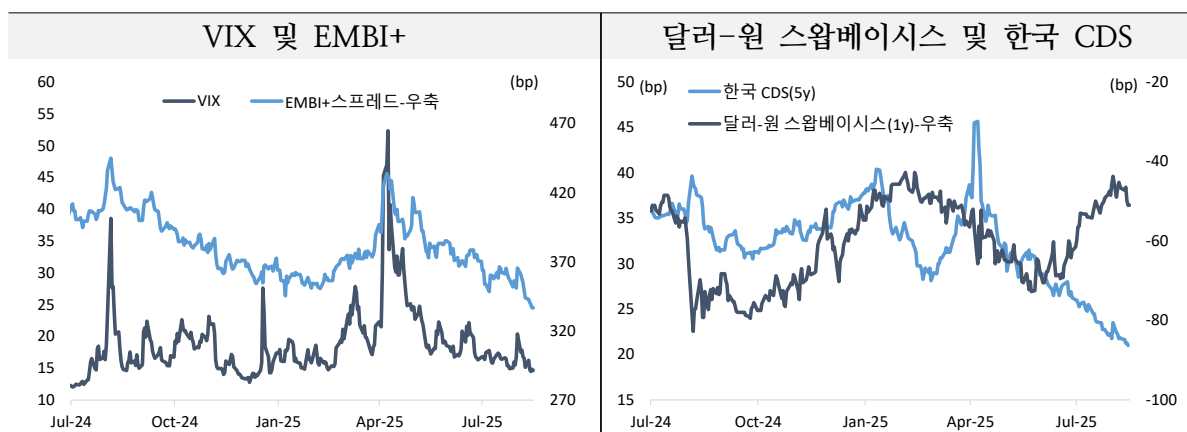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11, E-mail swlee@kcif.or.kr